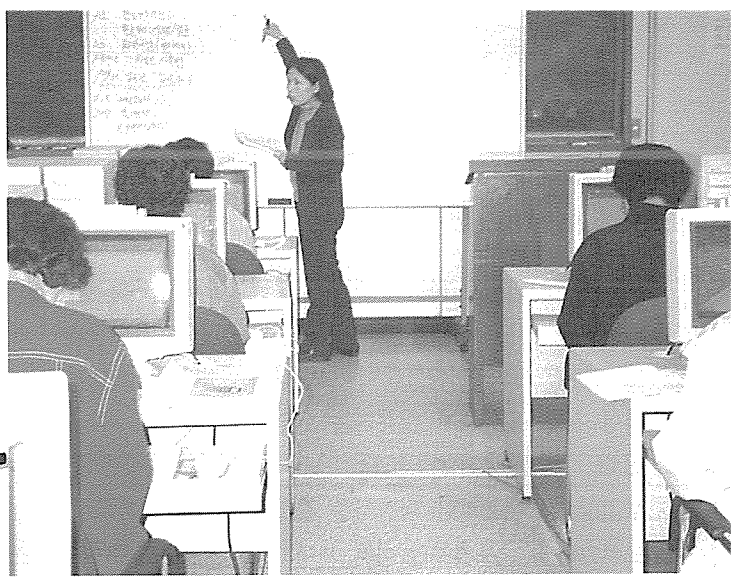


컴퓨터 하나로 세상을 다 가졌어요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운영하는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정부지원의 여성능력개발 교육기관이다. 여성의 집은 전국에 46개소가 있는데 이곳은 98년 3월에 개관해 이제 3년이 넘었다. 이 곳에서 하는 10여개의 교육과정 중 '주민 컴퓨터 교실' 얘기를 하려고 한다.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 21대와 부대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받아 컴퓨터의 기초과정을 가르치는 교실이다. 하루 2시간, 주 3회, 1개월간 'WINDOWS 98', '한글97', '인터넷'을 가르친다. 98년 7월에 시작해 매달 백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3천명에게 '컴맹탈출'을 하게 만든 교육장인 셈이다. "컴퓨터를 켜 줄도 모르는데요..."로 시작하는 전화 문의와 "한번 해 보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거쳐 배움을 시작한 우리의 이웃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골치 덩어리 기계와 씨름하고 있다. 컴퓨터를 모르면 자녀나 손자, 손녀와 대화도 안 되고 세상이 온통 사이버스페이스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랴! 이런 수강생 뿐 아니라 여성가장 취업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보험 훈련생들도 취업에 필수적인 컴퓨터를 익히려고 애쓰고 있다.

컴퓨터교실에 처음 온 수강생들은

용어 배우기부터 시작한다. '하드 디스크'와 '플로피 디스크'가 헛갈리고 'CD-ROM'은 무엇이며 키보드의 이름과 기능을 익히느라 힘들어 한다.

매월 1백명씩 컴맹탈출, 보람의 3년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잠깐,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차츰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WINDOWS 98로 컴퓨터 환경을 어느 정도 익히면 한글97로 문서를 작성해 본다. 내 손으로 만든 문서를 인쇄해 보면서 그들의 즐거움은 하나, 둘 늘어간다. 이제 인터넷과 PC통신을 배울 차례이다. 모든 사람의 화두인 '인터넷'이란 단어만 들어도 남에게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막막했는데 그걸 직접 해보게 되는 것이다. E-mail을 보내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채팅까지 해보면 자녀들과의 단절된 대화의 길도 열린다. 자녀들만 쓰던 컴퓨터에 편지를 띄운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은 배가 된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출석률 70% 이상이면 수료증을 받는데 이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이 3천명이나 된다. 수강생 중에는 한달로 배우기를 끝내기도 하고 똑같은 기초과정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도 한다.

수료생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도 꽤

있다. 63세의 박철환씨, 교회 장로님이신데 컴퓨터 배우기가 큰 숙제였다. '컴퓨터만 배우면 미국에 사는 딸과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하며 주민 컴퓨터교실을 찾은 것이 지난해 3월이었다. 한달의 교육이 끝나면서 박철환씨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달 동안 배운 내용이 머리속을 뚫뚫 떠다니는 것 같아도 모를 지경이었다. '이제 와서 컴퓨터는 배워 뭘 해!' 하며 실망한 채 발길을 돌린 그는 한달 후 다시 컴퓨터교실로 돌아왔다. 두번째 달부터는 전혀 들리지 않던 선생님의 설명이 간간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달에도 그는 여전히 컴퓨터 기초반에 앉아 있었다. 이거기를 5개월, 수료식 날 박철환씨는 사무실로 찾아와 나하고 마주 앉았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해야 이 고마운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요. 지난 일요일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미국에 사는 딸애와는 E-mail을 주고 받습니다. 전화도 인터넷으로 하고, 채팅은 해 보니까 재미없습니다. 애들이 이상한 맞춤법을 쓰는걸 보니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에게서는 컴퓨터 용어가 자연스레 흘러 나왔다. 이제 그는 컴퓨터와 친해

여성능력개발 교육기관인 ‘동작 여성의 집’은 98년에 개관해 3년 동안 3천여명에게 ‘컴맹탈출’ 교육을 시켰다. 수강생들 중에 63세의 교회 장로, 손자·손녀를 7명이나 둔 71세의 할머니, 남편과 사별한 후 취업훈련을 받은 주부 등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컴퓨터교실」을 수료한 후 지금은 E-mail도 주고 받고 전화도 인터넷으로 하며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金 然 珍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 관장)

진 것이다.

71세의 할머니도 찾아와

김귀희 할머니는 올해 71세이다.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손자, 손녀는 7명이다. 이렇게 다복한 분이지만 6월에는 용인에 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신다. “내가 떨어져 살아야 자식들과 사이가 좋은 채로 지낼 수 있어요”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예쁜 손자, 손녀를 자주 보지 못하는 거다. “컴퓨터로 편지를 보내면 바로 받아 본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레 묻는 할머니께 자신있게 대답했다. “지금에 1월이잖아요? 6월에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김귀희 할머니는 눈오는 겨울이나 심술긋은 봄비에 마다 않고 4개월간 컴퓨터교실을 찾았다. 6월의 어느 날 할머니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깜짝 놀라서 답장을 보내올 손자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떠오른다.

남편과 사별한 후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텔레마케터’ 과정을 받은 최순자씨.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녀는 우연히 신문기사를 읽고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교육에 전화실습을 하면서 텔레마케터가 되려고 애쓰던 최순자씨는

또 한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려면 컴퓨터 자판을 1분에 2백타는 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컴퓨터 자판에 하루종일 매달리다 보니 어깨에 통증이 오고 팔이 저렸지만 어떻게든 이겨냈다. 밤9시 컴퓨터교실이 문닫을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그녀는 훈련을 마치고 홈쇼핑회사에 취업했다. 이제 입사 3년 차의 텔레마케터로 실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때 컴퓨터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단다. 이들 외에도 컴퓨터를 배운 다음 어머니의 권위를 되찾았다는 주부, 기초과정을 거쳐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슈퍼마켓 사장님 등 여러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정보통신부는 새 천년 사이버 코리아를 향한 첫째 목표로 ‘정보통신 전문가가 많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학생, 군인,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업무 또는 생활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하는 신 지식인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인터넷을 잘 쓰는 나라만들기’이다. 인터넷은 생존과 번영의 필수무기이니 인터넷 활용이 필요한 곳에 컴퓨터 보급을 확산시켜 올해

까지 인터넷 사용자 3천만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여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정보화교육이 있다. 직장여성이나 여학생 등에 비해 정보화교육 기회가 적은 전업주부를 위해서도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여성의 집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 그 중 하나이다. 기초중의 기초과정인 ‘주민 컴퓨터 교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아무리 어려운 상위과정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신념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3천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남들은 저만치 가 있는데 나만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치는 듯한 소외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 한 군데에서만도 1년이면 천이백명, 십년이면 만이천명의 컴맹 탈출자를 늘려 놓다보면 이들이 모이고 모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